

#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회기명 :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답변일 및 순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변부서	답변자
2010. 12.2(목) 10:00	1 이정임 의원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엑스포지원단,투자유치담당관,지역개발과,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취합작성)	부 시 장
	2 오선균 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 및 위탁자 선정방법은? (시설명, 수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근거 등) - 민간위탁 보조금현황(국비,도비,시비,자부담) 및 정산결과와 시설별 관리감독 실적은? -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은?	사회복지과	행정복지 본 부 장
	3 신철성 의원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 제천시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실적 -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종자 공급현황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 센터소장
2010. 12.3(금) 10:00	1 조덕희 의원	제천시 경관 숲 조성대책에 대하여? (산림공원과) - 청관 숲 조성실적은? - 향후 경관 숲 조성계획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 과 장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 2010년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예산집행현황 (집행내역 포함) (평생학습체육과) - 산림욕장 시민이용공간제한에 관한 대책은? (산림공원과)	평생학습 체육과 (취합작성)	행정복지 본부장
	2 양순경 의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환경과)	문화관광과  환 경 과	제천시장  행정복지 본부장

#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조 덕 회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산림공원과장 윤 기 선
제 목	제천시 경관숲 조성대책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p>○ 경관숲 조성실적은?</p> <p>○ 향후 경관숲 조성계획은?</p>	
<p><u>답변내용</u></p> <p>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p> <p>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덕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경관숲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제천시 경관숲 조성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우리시 산림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제천시 산림정책은 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구현을 위하여 나무심기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p> <p>○ 잘사는 산촌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작목 개발, 산촌개발사업 및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p> <p>○ 산림의 공익기능증대와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생활권내 녹색 공간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자합니다.</p>	

□ 첫 번째 질문사항인 경관숲 조성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나무심기를 통해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육성과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산림바이오메스 공급기반구축, 친환경적인 수종갱신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나무심기사업 실적은 817ha에 1,532천본의 나무를 식재 하였으며,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 경제수조림외 3개 조림사업에 174ha 338천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09년도에 237ha 435천본, 2010년도에 406ha 759천본의 나무를 식재한바 있으며,
- 경관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큰나무공익조림과 한방바이오 수종의 나무심기사업 실적을 답변드리면 시관내 공한지 및 유휴토지 66개소에 143천본의 경관수종을 식재하였으며,
- 경관숲 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봉양읍 명암리의 11개소에 산수유외 16종 20천본, 2009년도에 한수면 송계리의 26개소에 63천본, 2010년 금년에는 금성야구장일원의 26개소에 60천본의 경관수종 및 한방수종의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촌마을별 경관숲 조성을 위하여 특화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바 25개 마을에 409백만원을 투자하여 30천본의 한방수종인 매실나무와 산수유 등을 식재하였으며, 도심주변의 경관숲 조성을 위하여 우량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의림지와 솔밭공원, 수도산, 남산, 향교뒷산, 장락수정타운 뒷산등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 두번째 질문사항인 향후 경관숲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과 경관성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수종 및 한방수종을 집단으로 식재하고 집약 관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숲을 조성하고,
-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나무심기사업 추진과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풍호 주변과 주요관문도로변에 중점을 두고 경관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청풍호주변의 마을주변 공한지와 주요도로변에 한방바이오 조림과 경관밀원숲을 조성코져 2011년도에 약20ha의 면적에 경관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하겠으며 3,500ha의 면적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숲을 보존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시설계획에 의하여 새로 신설되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소공원 조성시에도 관련부서 및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명품경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 끝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산림사업은 30~4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비전 없이는 경영할 수 없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기 수립된 제천시 산림 및 녹지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며 우리지역의 기후와 특성에 맞는 한방수종과 경관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지역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경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경관숲 조성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문의원	조덕희 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답변자	직위 행정복지본부장 성명 윤종섭
제 목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u>질문요지</u> ○ 2010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예산집행 현황 포함) ○ 산림욕장 시민이용공간제한에 관한 대책은?	
<u>답변내용</u> <p>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입니다.</p> <p>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및 산림욕장 시민이용 공간제한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먼저 2010년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향후 대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p> <p>1. 2010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p> <p>○ 제천시는 2009. 3. 17일 한국 파크텔에서 열린 아시아 사이클 연맹 총회에서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한국산악자전거연맹 현장 점검 및 용역 등을 거쳐 코스를 확정하고, 국도비 포함 1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p> <p>○ 우리시에서 열리게 된 2010년 아시아산악자전거 대회는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 선수권대회』, 『제2회 아시아 주니어 MTB 선수권 대회』 및 『제5회 아시아 BMX 레이싱 선수권 대회』의 3종 대회를 아시아 산악자전거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큰 의미가 있는 대회로 2010년 연초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2010. 9. 26일부터 10. 1일까지 6일간 아시아 15개국 21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p>	

○. 관련 참가인원은 각지에서 온 임원 포함 시민, 관광객 등 포함 2,417명으로 산정되며,

○. 운영관련 예산은 4억으로 내실있게 치루었는바, 대회 주최단체인 아시아 사이클 연맹으로부터 성공적 대회라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 2. 2010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자연 훼손 및 재해 우려입니다.

○. 무엇보다도 산악자전거 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개설한 코스로 인한 자연 훼손 및 재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 최대한 기존의 임도를 활용하고, 필요한 지점에 배수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선수들의 경기 및 추후 동호인들의 코스 답사 등으로 일부 자연훼손과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 2) 잔존 시설 관리입니다.

○. 2010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선수권 대회 결과 크로스컨트리(6.2km), 다운힐(1.7km) 코스와 350m에 달하는 BMX 경기장과 167㎡의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 3.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개선대책으로

### 1) 정기·수시 점검 강화로 자연 훼손 및 재해 발생 방지 철저입니다.

○. 개설된 코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우기 등 재해 위험시기에는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특보내용에 따라 수시 특별 점검 및 현장 정비 등을 통하여 자연훼손 및 재해발생발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경사가 급한 다운힐 코스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개설한 배수로 등의 막힘이 없도록 하고, 경사면에 쓰러진 고목 등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런 물흐름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 2) 시설 재활용 확대로 경제효과 제고입니다.

○. 개설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각종 대회 적극 유치, 동호인 수시방문 유도, 이벤트 마케팅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2011년도에는 대통령배 전국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유치 노력할 예정이며, BMX 경기장에서 서울 강나루의 시설과 번갈아 연간 8회 정도의 리그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한편,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장으로 적극 제공하여 해당 코스의 지명도를 높여 선수들은 물론 많은 동호인들의 방문 의욕을 자극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동호인 및 국내외 선수 수시 방문 유도입니다.

○. 우리시는 천혜의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산악자전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 선수권 대회 등 아시아 산악자전거 관련 3종의 대회를 동시에 같은 곳에 유치, 개최하였다는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여 국내외의 많은 동호인과 선수들의 수시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상담요청에 친절히 응대하며, 필요 시 체육부서 직원 또는 관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이드가 되어 안내도 하는 등의 유도책을 실시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클럽단위 단체로 다니는 관례가 있어 적지 않은 관광객 지역 유입효과가 있으며, 장거리 이동 등으로 소지 물품을 최소화한 채 방문하는 관계로 잡화 등의 지역 내 구입 확대에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세번째 이벤트 마케팅 실시입니다.

○. 전국의 등산 매니아와 100여만명에 이르는 전국 MTB 동호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코스 등으로 이벤트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초보 MTB 동호인 가능한 국제 경기 구간 중 초보 코스”, “가족과 함께 등산할 수 있는 국제경기 구간 코스”와 “생태학습 트래킹 코스”등을 적극 개발하여 홍보하고, 필요 시 직장인과 청소년 극기 훈련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최상의 산악자전거코스과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규격인 BMX 경기장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동호인과 중·고·대학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4.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 선수권 대회 등 추진 예산은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원으로 2010. 5. 7. 대한사이클연맹과 대회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2010. 9. 26~2010. 10. 1일까지 2010년 아시아 MTB/BMX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대한사이클연맹에서 결산한 내용은

○. 총 수입은 416,760천원으로 보조금 400,000천원과 후원금 16,760천원이고, 총 지출은 415,642,174원으로 잔액은 1,117,826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지출내역은 따로 붙인 정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산림욕장 시민이용 공간 제한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0년 아시아 MTB/BMX 선수권 대회 경기장 부분에 대하여는

○. 현재 조성되어있는 용두산 산림욕장은 송학면 도화리 1-1번지 외 2필지 35ha를 산림욕장으로 지정하여 1999년부터 조성을 시작 2001년도에 준공 현재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아시아 BMX/ MTB 경기 대회를 위하여 피크닉존지역 3,150㎡에 경기장을 설치하였으나, BMX 경기장 등을 제외한 부분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낙엽송 그늘 아래 부분을 정비하고 새로 조성된 광장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휴양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현대식 화장실 신축으로 이용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산림공원 지속 확대등 산림욕장 이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숲 이용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과 한방 건강도시 조성과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생태 건강숲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물안이골에 산림청 지역생태숲조성 사업으로 한방생태숲 50ha를 2008년부터 조성하여 2010년도 완공 시민들이 이용토록하고 있는 이외에

○. 지속적인 용두산지역 생태 건강 숲 확충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모산동 산1, 2번지 일원(까치봉) 50ha규모의 도시산림공원에 산책로개설, 피톤치트숲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휴게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 산림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조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2010년 아시아 MTB/BMX 선수권 대회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각종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양 순 정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답 변 자	직 위 제천시장 성 명 최명현
제 목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p><u>질문요지</u></p> <p>○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p> <p>○</p>	
<p><u>답변내용</u></p> <p>-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p> <p>-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최되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축제들을 개발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p> <p>- 제천시도 기존의 자생적인 축제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제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국단위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 되어 200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p> <p>- 음악영화제를 만들게 된 동기는 영화와 음악은 가장 강력한 대중적인 매체이자 콘텐츠로서 모객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영화제는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지역의 홍보효과가 가장 빠르고 용이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음악영화제로 국내외 타 영화제와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가 쉽다고 판단하여 음악영화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p>	

- 영화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문화를 고양하여 제천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과 조화된 특성화된 국제영화제 개최로 영상문화 산업기반이 전무한 중부권 영상문화 산업 성장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방과 서울의 문화적 편차가 심한 현실에서 영화제를 통해 제천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시키며 영화와 음악 마니아들에게 갈증을 해소함으로써 제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었다고 자부 합니다
- 특히 국내 국제영화제들이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에 비해 인구 7만의 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최고의 프랑스 칸영화제 성공은 제천에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격을 말씀 드리면
  - 첫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스럽고 편안한 휴양영화제며
  - 둘째 음악을 영상의 동반자로 끌어올린 미래지향적인 음악영화제며
  - 셋째 영화 음악 마니아에서 가족과 노년층까지 함께하는 영화제
  - 넷째 다양한 변주로 늘 새로울 수 있는 비전 있는 영화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본 영화제의 캐치 플레이즈는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으로 청풍호반을 상징하며 휴양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격으로는 부분경쟁국제영화제이며 매년8월 둘째주 6일간 개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7일간으로 늘리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 2005년 8월 10일 제1회 음악영화제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4일 제천음악영화제가 축제박람회때 단기간 성공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 제1.2회는 청풍영상위원회 소속이 되었으나 영화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제3회 영화제를 개최하고 난후 2008년5월11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7월6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0년 3월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협찬이나 후원금을 받아 영화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영화제 기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사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팀, 공연팀, 사업팀, 홍보팀, 초청팀, 운영팀, 총무회계팀, 웹팀, 미술팀, 자막팀, 이벤트팀 등 11개팀이 있으며,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9명 정도입니다  
 영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4개월 단기 스텝진 약 40명을 추가 고용 하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 중 10일간 자원봉사자인 집프리 240여명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집프리 선발시 약 1,200명이 몰려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제천음악영화제에 전국적인 지지도가 높다고 볼 있으며, 집프리의 보수는 숙식 제공과 함께 하루 1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숙소는 영화제직원들을 포함하여 세명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영화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음악영화 상영 및 공연, 특별프로그램, 이벤트 진행
  - 영화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천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 음악영화 사전 제작 지원을 통한 인재 발굴 및 육성
  - 세계 음악 영화제 네트워크와 아시아 음악감독 네트 워크 관련사업
  - 의미 있고 시의성 있는 주제선정, 국내외 패널을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JIMMF 포럼
  - 제천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전 사후 프로그램 사업
  - 영화 음악가 공로와 업적을 재조명하는 “제천영화음악상” 사업
  - 신인뮤지션 지원프로젝트 “거리의 악사”프로그램 운영
  - 관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휴양 영화제로서의 “짐프캠프” 운영
  - OST 뮤지엄을 통해 국내외 영화음악의 개념 정리 및 자료수집 전시
  - 교통, 숙박, 영화제 입장권을 받아 관객이 원하는 구성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바람불어 좋은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화제 추진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영화제는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15개국 42편 70여회 영화 상영과 15여회의 음악공연이 있었으며, 개막작으로는 스윙걸즈, 폐막작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으며 사업비는 7억원이며, 방문객은 5만명, 주한프랑스 문화원에서 후원하였습니다.
  - 제2회 영화제는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27개국 45편 70여회 영화상영 및 18여회 음악공연이 있었으며 개막작은 프란시스코의 두아들, 폐막작은 파리나타이며.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 이며. 방문객은 8만명,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 제3회 영화제는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24개국 73편 100여회 영화상영과 30여회 음악공연을 하였고, 개막작은 원스, 폐막작은 카핑 베토벤을 상영 하였습니다. 예산은 13억 5천만원이고, 관람객수는 12만명으로 추산 하였으며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 제4회 영화제는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30개국 82편 100여회 영화 상영 및 50여회 음악공연을 하였고 개막작은 로큰롤 인생, 폐막작은 비지터를 상영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천만원이고, 방문객은 12만명으로 추산 하였으며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 제5회 영화제는 부분경쟁 국제영화제로 영화제 특성을 살렸으며, 35개국 87편 125여회 영화상영 및 60여회 음악공연을 하였고, 개막작은 솔로리스트, 폐막작은 경쟁부문 출품작중 대상을 받은 “엔빌의 헤비메탈 스토리”를 상영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천만원이며, 방문객은 13만명으로 추산 되었고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 제6회 영화제는 부분경쟁 국제영화제로 26개국 84편 106여회 영화 상영 및 60여회 음악공연을 하였고 개막작은 더 콘서트, 폐막작은 경쟁부문 출품작중 대상을 받은 “킨샤샤 심포니”를 상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천만원이며 방문객은 13만명으로 추산 되었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 영화제를 통하여 제천을 홍보 하는데 있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언론매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일간지 신문,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라디오, 주요영화전문지, 주/월간지, 인터넷으로 분류 할 수가 있으며

제1회는 총 200건, 제2회 때는 282건, 제3회 때는 1105건, 제4회 때는 1768건, 제5회때는 3597건, 제6회때에는 3566건을 기록하였으며 제5회 때에는 네이버 실시간검색 순위가 1위에서 10위까지 국제음악영화제가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영화제를 치르면서 외신 26개 매체 48회 이상 노출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화제 개최하기 1달 전에 기자회견을 하여 전체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기자 70여 단체의 취재 열기를 볼때 영화제가 앞으로 프랑스 칸느영화제 처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것을 실감 하였습니다.

- 2005년 시작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화와 음악이라는 신선한 컨셉과 제천의 수려한 자연이 만나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외부평가를 받아
  - 2007년 제2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서 성공한 축제로 선정되어 성공사례를 발표 하였으며,
  -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2008년도 충북52개 축제중 전국인지도와 선호도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영화제가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였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 '(사)한국관광평가연구원'에서 주최한 '2009 대한민국 문화·관광 서비스 대상'에서 '혁신 정책, 진흥' 부문 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3회 부터는 영화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가용역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말씀 드리면
  - 제3회 영화제에서는 경제적 생산파급효과 51억6천3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38억3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제4회 영화제에서는 경제적 생산파급효과 50억7천3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36억 7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제5회 영화제에서는 경제적 생산파급효과 69억1천5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51억 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제6회 영화제에서는 경제적 생산파급효과 75억8천6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56억 3백만원으로 나타났듯이
- 해가 갈수록 영화제의 성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화제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추산된 연평균 유효방문객수는 5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외지인 비중이 80%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화제가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 방문객의 평균 지출액이 3년동안 조사한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제가 제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앞으로 커질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제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영  
화제를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영화제 기간 중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영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설문결과 보통이상이 94%, 영화제 개최가 제천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문결과 보통이상이 92.9%, 영화제가 제천을 알리는데 기여한다는 설문결과는 보통이상이 무려 97%로 나타나 (2009년 기분좋은 트렌드 하우스 QX)
- 제천시민 대다수는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비롯해 영화제를 통해 제천시를 홍보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영화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영화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내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화제의 개·폐막식 및 대표 프로그램인 “원 씬머 나잇”이 청풍에서 열리는 관계로 시민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인데, 시내의 지역경제에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시내 프로그램을 집중 보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중앙시장 활성화 이벤트는 성공적인 반응과 평가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프 스테이지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천의 대표 명소인 의림지로 고정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영화제의 주인의식 고양과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의림지에서 폐막식을 개최 하는 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영관 확충 방안입니다.

영화제의 상영관이 TTC 상영관이 유일하여 상영관 확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영화관이 유치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차선택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문화회관, 영상미디어센터, 관내 대학교 상영시설, 한방생명과학관 상영관 등을 영화제 상영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영관 확충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영화제를 만들겠습니다.

영화제의 주인인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축제로 승화 될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설을 이용한 영화제의 연중 프로그램 운영, 전년도 유명 상영작을 다시 상영 하는 JIMFF 감사 상영회 개최,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영화제 기간 중 야외 무료 상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몇 가지 말씀드린 발전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 확충이 절실 하다고 생각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영화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의 문화이미지 브랜드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양 순 경 의원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답 변 자	직 위 행복복지본부장 성 명 윤 종 섭
제 목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 질문요지

□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 방안

## 답변내용

행복복지본부장 윤 종 섭 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양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현황입니다.

○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1986년12월30일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이후 1989년 차고 및 사무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25년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시 청소센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위치는 하소동 323-7번지 용두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으로 부지면적은 1,640㎡(496평)이며, 건축물은 대기소, 사무실, 창고 등 489㎡(148평)입니다.

○ 구체시설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기 및 사무실(조립식 판넬) : 80.6㎡(24.4평)
- 환경미화원 샤워장(시멘트벽돌, 스테트) : 13.7㎡( 4.2평)
- 청소차량 차고지(블럭, 경량철골, 스테트) : 257.0㎡(77.8평)
- 운전원 사무실(시멘트벽돌, 슬라브) : 55.4㎡(16.8평)
- 창고(세멘트벽돌, 스테트) : 13.7㎡( 4.2평)
- 화장실(조립식 판넬) : 11.3㎡( 3.4평)
- 환경미화원 휴게실(조립식 판넬) : 57.0㎡(17.2평)
- 기타 차량세차시설 1식

○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읍·면 제외)

구 분	인 력(명)			청 소 장 비(대)						
	소계	운전원	환 경 미화원	차 량						손수레
				계	노면 청소	압착 진개	진개 덤프	재활용 음식물 (화물)	기동반 (승합)	
본청	63	9	54	14	3	2	2	6	1	25

※ 기타 불로어, 빗자루, 삽, 마대 등 청소장비 및 보수장비

②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는 9명의 청소차량 운전원과 54명의 환경미화원이 새벽부터 도로청소와 분야별 청소작업을 위해 출근부터 퇴근까지 작업과 대기,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을 위한 청소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8년 제천시자원관리센터 건립 당시 센터 시설내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최소한 500평 규모이상 필수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① 장소협소, ② 현장작업을 위한 환경미화원의 새벽청소 및 출·퇴근, 휴식과 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③ 외곽으로 이전 시에도 청소기동성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시설을 시내지역에 확보해야 하며, ④ 특히, 민원이 없는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백지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시 청소행정은 크게 ① 생활폐기물 중 소각·매립용과 음식물 쓰레기는 3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 민간대행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② 시에서는 현재 차량대기소에서 도로청소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된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지도단속 등 직접 운영 등 2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 건은 용두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지난 2008. 9월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도 측량설계비(123백만원)와 2010년도 토지매입비(200백만원) 포함 32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 2010. 02. 03일 용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신(개)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으나, 이전 장소 선정과 부지매입 및 시설물 신축 등에 많은 예산 소요와 특히, 2009. 10. 23일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축보류 지침』에 따라 용두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은 전면 보류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에서 거론한 용두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 집행보류 등 상황변화를 감안,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 문제는 종합적인 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대안검토 시 ① 현 부지내 현 시설을 존중 현행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② 청소대기소를 이전하고 용두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방안, ③ 청소대기소는 존치하고 용두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장단점과 소요예산 및 이전 계획 시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후, 결론을 내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써 신중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